

■ 2026 새해설계 임택 광주 동구청장

“경제위기 극복…밝고 활기찬 도시 건설 매진”

지역회폐 발행·인공지능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
13개동 마을사랑채 완성…주민주도 마을복지 실현

“정기화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경제도 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택 광주동구청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추진해 온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이 결실을 맺어 주민의 생활 속에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AI 창업·실증밸리 조성,

AI 헬스케어 혁신기업 육성, AI 콤플렉스 센터 설립, 선교지구 광주 AI 노하우 업 실증연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무등산·의재 문화유적지·춘설차 밭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과 종장로 ‘AI 창의문화복합공간(가칭)’ 조성,

‘제23회 광주 추억의 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화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0억 원 전략 완판 성과를 거둔 지역회폐 ‘광주 동구랑페이’를 올해 총 100억원 규모로 확대, 상·하반기 각각 50억원씩 두 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2

억원 이하 임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는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대형 유통 중심 소비 구조 속에서도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AI 창업·실증밸리 조성,

AI 헬스케어 혁신기업 육성, AI 콤플렉스 센터 설립, 선교지구 광주 AI 노하우 업 실증연구 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무등산·의재 문화유적지·춘설차 밭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과 종장로 ‘AI 창의문화복합공간(가칭)’ 조성,

‘제23회 광주 추억의 축제’ 글로벌

명품 축제화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0억 원 전략 완판 성과를 거둔 지역회폐 ‘광주 동구랑페이’를 올해 총 100억원 규모로 확대, 상·하반기 각각 50억원씩 두 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2



체 등 공동체 거점을 통해 상담·돌봄·주거가 연계된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13개 전 행정동 마을사랑채 시대를 열어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

특히 계림동 쪽방촌 거주민과 은둔형 외톨이 등 고령화 기구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영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운영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와 연계한 ‘행복신문 배달’, 동구형 유품정리사인 ‘나비(나눔·비움) 활동가’ 등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동시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옛 위생매립장 자리에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H-파크’를 조성하고, 산수2동 자원순환형 그린마을,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또 광주극장과 독립서점 소년의 서 등 인근 로컬브랜드와 연계한 F&B 입점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공동체 부문에서는 쪽빛상담소, 들판날장 커뮤니티센터, 마을사랑

체 등 공동체 거점을 통해 상담·돌봄·주거가 연계된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13개 전 행정동 마을사랑채 시대를 열어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

특히 계림동 쪽방촌 거주민과 은둔형 외톨이 등 고령화 기구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영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운영을 비롯해 지역 언론사와 연계한 ‘행복신문 배달’, 동구형 유품정리사인 ‘나비(나눔·비움) 활동가’ 등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동시에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옛 위생매립장 자리에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H-파크’를 조성하고, 산수2동 자원순환형 그린마을,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또 광주극장과 독립서점 소년의 서 등 인근 로컬브랜드와 연계한 F&B 입점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공동체 부문에서는 쪽빛상담소, 들판날장 커뮤니티센터, 마을사랑

오늘의 날씨

| 기온 | | 일기 | 기온 | 일기 |
|-------|---------------|----|-------|---------------|
| 07:42 | 20:49 | | 17:35 | |
| 서울 | -6~4 | 흐림 | 대전 | -6~4 |
| 전주 | -5~5 | 흐림 | 대구 | -4~7 |
| 제주 | 3~9 | 흐림 | 부산 | -1~9 |
| 광주 | -3~7 | | 목포 | -3~5 |
| 여수 | -2~8 | | 여수 | -2~8 |
| 순천 | -3~9 | | 구례 | -4~8 |
| 제주 | -4~7 | | 제주 | -2~8 |
| 전남 | 3~7 | | 목포 | 3~7 |
| 전북 | -4~9 | | 여수 | -1~6 |
| 제주 | 03:48 / 16:40 | | 제주 | 09:08 / 21:49 |
| 전남 | 11:21 / 23:28 | | 전북 | 04:46 / 17:22 |

“한빛원전 수명연장 반대”…도보 순례 출발

전국 41개 단체 동참…정부 정책 전환 결단 촉구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탈핵단체와 종교계, 지역 주민들이 의 반대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 41개 시민·종교·환경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5일 한빛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탈핵희망 전국순례’ 도보 행진에 돌입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한빛원전을 비롯해 고리원전, 기후에너지 정책의 책임 기관이 있는 세종시에서도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순례 출발을 알렸다.

이들은 “핵발전소가 위치한 고리와 한빛, 그리고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세종에서부터 탈핵희망 전국 순례를 시작한다”며 “더 이상 이 땅에 핵발전소는 필요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wangnam.co.kr



와! 방학이다 5일 겨울방학에 들어간 광주 북구 일곡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이 생활통지표를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지역 대표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교육청-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잠정 합의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등 복무 여건 개선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해왔던 ‘2024 단체협약’을 1년 6개월만에 잠정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10일 광주 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경우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도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기울후가 3일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가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라며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존중하고 향후에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당 1000원, 전남은 1100원~1200원에 달한다.

이에 광주시는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최대 20만원을, 전남도는 가구당 9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연탄쿠폰까지 포함하면 기구당 57만~67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겨울철 평균 소비량을 고려하면 전체 필요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상당 부분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다.

설상가상으로 민간 봉사단체의 후원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민간 후원이 위축된 데다, 연탄유통·운반 인력의 고령화로 공급 여건까지 취약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늘고 있는 저소득층이 사회 변화에 밀려 내려온 계층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주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차상위계층이 무너지면 복지 수요는 급격히 늘 수밖에 없다”며 “난방과 식사처럼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영역에서 원종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고객 집 턴 40대

2000만원 흡친 혐의 구속

방문판매를 빌미로 고객의 집을 드나들며 현금을 흡치고 돈까지 빌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절도 및 차용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방문판매 활동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을 흡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모두 12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문판매 과정에서 파악한 피해자의 주거 구조를 토대로 금고 위치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에 나서 같은 달 24일 전남 순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